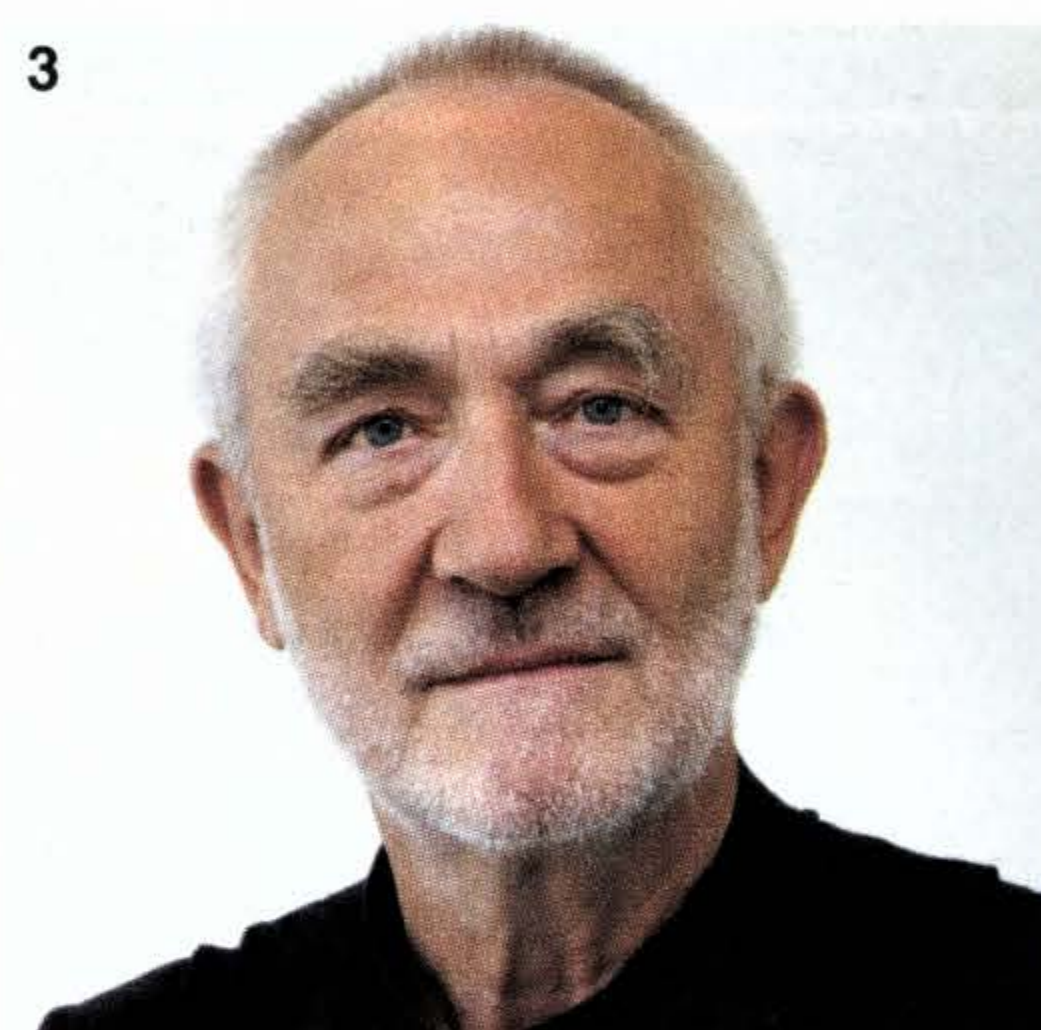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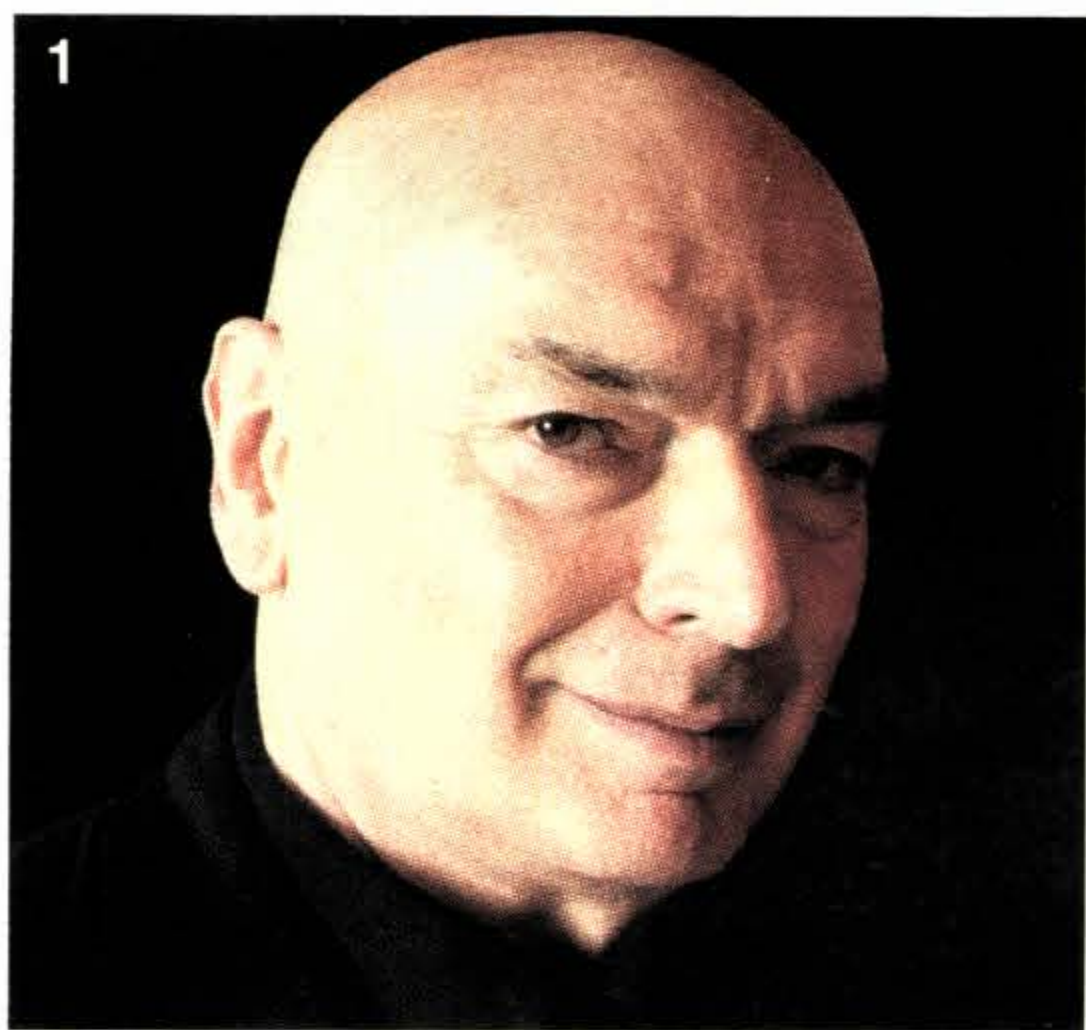


# Architecture:

**A** 프리츠커 수상자들의 최근작

## Recent Works of Pritzker Architecture Prize Winners



1 장 누벨 2 프랭크 게리 3 페터 Zumthor 1 Jean Nouvel 2 Frank Gehry 3 Peter Zumthor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은 197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탁월한 건축으로 인류와 환경에 공헌한 건축가들에게 수여돼 왔다. 그들이 보여 온 혁신적 디자인이 프리츠커 수상의 근거라면, 그 영예는 다시 새로운 실험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수상자인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은 최근 카타르 국립박물관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이 건물은 약 540개의 원형판이 다양한 각도로 교차하며 만들어 낸 형태가 독특하다. 이는 누벨이 사막의 '모래 장미'에서 착안한 디자인인데, 디자인의 실현을 위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과 같은 최신 기술로 지가 적극 도입됐다. 1989년 수상자인 미국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프랑스의 루마아를 타워도 카타르 국립박물관 못지않은 조각적 형태를 자랑한다. 아직 공사 중인 이 타워는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재생된 루마아를 콤플렉스의 중심 건물로 계획됐는데, 유리의 원형 저층부를 관통해 올라 타워부를 감싸는 알

루미움 타일의 비정형 외장이 게리 특유의 건축 어휘를 보여 준다. 빌바오 구겐하임 뮤지엄이 그렇듯 불규칙한 조형성과 번득이는 금속성 표면은 그의 건축의 전형적 특징이다. 게리 역시 최신 디지털 기술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프리츠커 수상자들이 모두 대규모 건축물로 도시적 세련미와 하이테크 기술을 뽐내는 것은 아니다. 2009년 수상자인 스위스의 페터 Zumthor는 1996년의 발스 온천, 2007년의 브루더 클라우스 채플 등에서 보여 주었던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원초적 감각의 공간을 빚어내는 건축가다. 그가 2018년 완공한 영국 데번의 세쿨러 리트리트 주택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건축가 안드레아 팔라디오의 전통을 따라 자연 속에 어우러진 건축을 추구한다. 단층의 작은 집이지만 너른 유리창과 유리벽으로 경관을 끌어들이고 자연과 합일되길 원하는데, 시공 흔적이 남은 콘크리트 벽과 건물 내외부 장식의 섬세한 마감은 건축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낸다. by 김현섭

Celebrated as the Nobel Prize for architecture, the Pritzker Architecture Prize has been awarded each year since 1979 to architects who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humanity and the environment. The Pritzker Prize honors those who take leaps of faith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The 2008 recipient, Jean Nouvel, recently unveiled his design for the National Museum of Qatar. The building has a unique shape, consisting of around 540 discs merged at various angles. Its design, which was inspired by the desert rose, used cutting-edge technology such as 3D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In terms of structural form,

France's Luma Arles tower, designed by the 1989 recipient, Frank Gehry, rivals the museum.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it was planned as the centerpiece of the Luma Arles complex, a multipurpose cultural platform. Gehry's idiosyncratic architectural syntax is apparent in the irregular facade of shiny aluminum tiles that cover the tower, which looms above a glass-clad cylinder housing its lower floors.

However, not all the prizewinners flaunt urban-centric elegance and high-tech glamour with large-scale buildings.

The 2009 recipient, Switzerland's Peter Zumthor, is an architect who evokes primal sensibilities using minimalist designs. This is demonstrated in Therme Vals and Bruder Klaus Field Chapel. Also, the Secular Retreat (completed in 2018) in Devon, United Kingdom, follows in the footsteps of Italian Renaissance architect Andrea Palladio, aiming to blend architecture and nature. Although a modest house with a single floor, it seeks to draw from its natural surroundings via broad windows and glass walls. Its concrete walls and intricate finishes faithfully reveal the essence of its architectural intent.

by Kim Hyon-sob

1 카타르 국립박물관 2 루마아를 3 세쿨러 리트리트 주택  
1 National Museum of Qatar 2 Luma Arles 3 Secular Retreat

